

광역 문화자원의 수집과 기록 : 아시아 목화문화자원을 중심으로

노시훈*

1. 머리말
2. 목화의 전파와 분포
 - 1) 아시아의 경우
 - 2) 국내의 경우
3. 목화문화자원의 수집과 기록
 - 1) 목화문화자원세트
 - 2) 수집·기록 지역
 - 3) 네트워크, 학제간 연구, 디지털 아카이브, 비교 전시
4. 맺음말

*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주요논저 : 「웹 생태박물관을 활용한 문화유산의 기록과 보존 : 무등산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제27집, 한국기록학회, 2011; 「해양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 프랑스 대서양 연안 지방의 해양박물관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제84집, 한국불어불문학회, 2010; 「여수지역 해양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호남문화연구』, 제47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0.

[국문 초록]

아시아에서는 기원전부터 남아시아의 인도에서 재배·생산한 목화화 면직물이 아시아 전 권역으로 육로와 해로를 통해 전파됨으로써 목화길과 면문화권이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363년 문익점이 중국에서 들여온 재래면을 재배하다가 1904년부터 일본을 통해 들어온 육지면을 재배하였다. 특히 광주·전남은 조선시대까지 재래면 생산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었고, 육지면 도입 후에는 목화 재배와 면직물 생산의 중심지였다. 이처럼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목화문화자원을 수집·기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구성 요소들을 분류한 문화자원세트를 만들고 그에 따라 수집할 객체를 조사한다. 수집 대상 지역은 전파 경로와 목화에 관해 지역이 갖는 의미를 토대로 선정한다. 아시아 전체에서 관련 자원을 직접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역 문화자원의 수집·기록에 필요한 학제간 연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실제 유물 수집의 한계를 고려하여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위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를 누구나 원격으로 향유·활용할 수 있도록 웹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자원들의 유사와 차이, 상호간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에서 비교 전시하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제어 : 문화자원, 문화자원 수집·기록, 목화, 목화길, 문화자원 세트, 디지털 아카이브

1. 머리말

한 주제와 관련된 문화자원이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을 경우 그 수집과 기록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분포 지역이 한 도시나 지방을 넘어 여러 나라에 걸쳐 있고 그 분포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집·기록을 수행해야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은 문화자원의 수집과 기록에 막대한 시간, 예산, 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인력과 관련해서는 여러 나라에서 문화자원을 수집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언어와 문화에 밝은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이들 간의 협력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광역 문화자원의 수집과 연구는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수행된다.¹⁾ 또한, 대부분의 경우 투입되는 시간, 예산, 인력을 줄이기 위해 수집·기록 지역과 객체를 한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 큰 어려움은 이처럼 필요한 시간, 예산, 인력을 줄이기 위해 광역 문화자원의 수집·기록 지역과 객체를 한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객체를 수집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자원이 특히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대표적인 객체만을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수집하고자 하는 자원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수집·기록 지역과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난제가 된다.

1)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서 아시아 문화자원 수집 사업으로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아시아 생태문화 연구와 문화자원 수집 사업’, ‘스토리텔링을 위한 한-중앙아시아 신화·설화·영웅서사시 공동조사 및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사업’, ‘아시아 지역 암각화의 문화적 가치발굴과 콘텐츠 자원화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때 특히 중요한 일은 광범위한 지역 내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자원들 간의 맥락을 찾는 일이다. 한 주제와 관련된 문화자원이라고 할 지라도 그것이 위치한 지역이 달라지면 해당 지역의 자연·문화 환경에 따라 다른 속성과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그러한 차이를 전제로 여러 다른 지역의 자원을 수집하여 비교하고 그것들 간의 전과 경로나 영향 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기 다른 지역에서 수집된 자원들을 관통하는 주제를 드러낼 수 없어서 수집과 기록이 일관성을 가질 수 없다. 문제는 역시 관련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 경우 그 맥락을 예상하기 어렵고 수집과 비교 분석이 진행된 후에야 맥락 파악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수집된 문화자원을 어떻게 기록·보존하여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자원의 수집이 아카이브나 박물관 건립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별 문제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보다 많은 자원을 기록·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된다. 또한 그 아카이브가 구축된 뒤에 이를 보다 많은 사용자가 쉽게 활용하도록 서비스하는 방법을 마련해야만 수집과 기록·보존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아시아의 ‘목화’(木花, cotton) 관련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위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광역 문화자원을 수집·기록·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목화문화자원’을 예로 든 것은 그것이 문화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적 보편성을 가지면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자원 가운데 하나여서 그 수집·기록을 국내에서 시작하여 아시아 전체로 일관성 있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욱과(Malvaceae) 목화속(Gossypium)에 속하는 목화에서 생산된 면

(綿)이 비단과 양모보다 높은 경제성으로 인해 지난 수천 년간 인류 의복의 ⅔의 원료로 사용되었고 산업혁명을 불러일으켰을 정도로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그것이 경제성으로 인해 기층 민중의 의생활에 큰 공헌을 한 점은 강조되어야 하는데, 문화사에 있어 비단만큼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기원전부터 남아시아의 인도에서 재배·생산한 목화와 면직물이 서남·중앙·동남·동북아시아 전 권역으로 육로와 해로를 통해 전파됨으로써 ‘목화길’(Cotton Road)과 면문화권이 형성되었고, 2010년 현재 세계 목화 생산에 있어 중국(1위), 인도(2위), 파키스탄(4위), 우즈베키스탄(6위), 터키(8위)²⁾ 등 아시아 여러 지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조사·연구, 관련 문화자원 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역시 아쉬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을 통해 전해져 의생활 혁명을 가져온 인도면(印度棉, *Gossypium arboreum*)을 재배하다가 1904년부터 일본을 통해 들어온 육지면(陸地棉, *Gossypium hirsutum*)을 재배하였다. 특히 광주·전남은 현재 목화를 거의 재배하고 있지 않으나 조선시대까지 재래종의 생산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었고, 육지면이 들어온 후에는 목화 재배와 면직물 생산의 중심지였다. 또한 목화는 이 지역에서 단순한 의복 원료에 그치지 않고 문화, 산업, 도시 발전 등 여러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광주의 성장과 발전은 목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방직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목화는 지난 한 세기 동안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주요 문화상징 가운데 하나라고

2) 세계 목화 생산국 순위 통계는 미국목화협회(National Cotton Council of America) 홈페이지(<http://www.cotton.org>)의 [경제(Economics)]-[수확량 정보(Crop Information)]-[데이터베이스(Database)]-[세계목화데이터베이스(World Cotton Database)]-[순위(Rankings)] 메뉴(<http://www.cotton.org/econ/cropinfo/cropdata/rankings.cf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목화는 아시아 전역에서 널리 재배·활용되어 아시아인이 공유하는 생활문화를 형성하였고,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목화 재배와 면방직이 사양화하기 전까지 산업·문화의 발전을 견인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아시아와 국내에서 목화가 전파된 경로와 그 분포를 살펴본 뒤, 다음으로 목화문화자원의 수집과 기록에 있어 수집·기록 지역과 객체,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용, 학제간 연구,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한 기록·보존과 서비스, 비교 전시 등의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목화의 전파와 분포

1) 아시아의 경우

목화에는 많은 종이 있으나 특히 중요한 네 개의 종이 오래전부터 세 대륙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네 개의 종은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바 있는 인도면·육지면과 아시아면(*Gossypium herbaceum*), 해도면(海島棉, *Gossypium barbadense*)을 말한다. 아시아에서 재배된 인도면과 아시아면의 원산지는 각각 인도·파키스탄과 남아프리카·아라비아반도로 알려져 있다. 인도면이 언제부터 재배되기 시작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인도와 파키스탄 유적에서 기원전 2300년경의 것으로 보이는 면직물 유물이 발견된 것으로 볼 때 그 시기는 이보다 훨씬 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시아면은 그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 그 재배 시작 시기를 짐작하기 어렵다. 두 종은 모두 오랫동안 폭넓은 지역에서 재배되었으나, 근대 농업이 시작되면서 아시아면보다 농업경제학상 우수

한 인도면이 선호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둘 모두 그보다 우수한 신대륙의 품종으로 대폭 교체되었다.³⁾

신대륙의 품종은 남아메리카 페루 원산으로 보통 ‘Sea Island cotton’이라 불리는 해도면과 중앙아메리카·멕시코 원산으로 보통 ‘Upland cotton’이라 불리는 육지면이다. 해도면은 남아메리카 서북부 해안과 내륙에서 주로 재배되었는데, 페루 중부 해안과 에콰도르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로 볼 때 기원전 3000~3500년경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육지면은 중앙아메리카 대부분의 지역과 카리브 해에서 재배되었는데, 멕시코 테우아칸(Tehuacan) 계곡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로 볼 때 기원전 2000~3000년경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⁴⁾ 이 두 종은 길이, 품질, 생산량이 보다 우수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시아 원산의 두 종을 대체하였는데, 길이와 품질은 해도면보다 떨어지지만 생산량에서 앞서는 육지면이 가장 선호되어 현재 세계 목화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⁵⁾ 이외에도 이집트면(Egyptian cotton)이라 불리는 종이 있는데 이는 19세기에 이집트에 유입된 해도면에서 분화된 종이다.

C. 웨인 스미스(C. Wayne Smith)와 조 톰 코스렌(Joe Tom Cothren)은 『목화 : 기원, 역사, 기술, 생산(Cotton : origin, history, technology, and production)』(1999)에서 아시아면, 인도면, 해도면, 육지면 각각의 일반적인 분포와 전파 경로를 그림들⁶⁾로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전파 시기가 그림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 순서나 시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타케베 요시토(武部善人)가 『면과 목면의 역사(綿と木綿の歴史)』(1989)에서 세계 목면의 기원과 전파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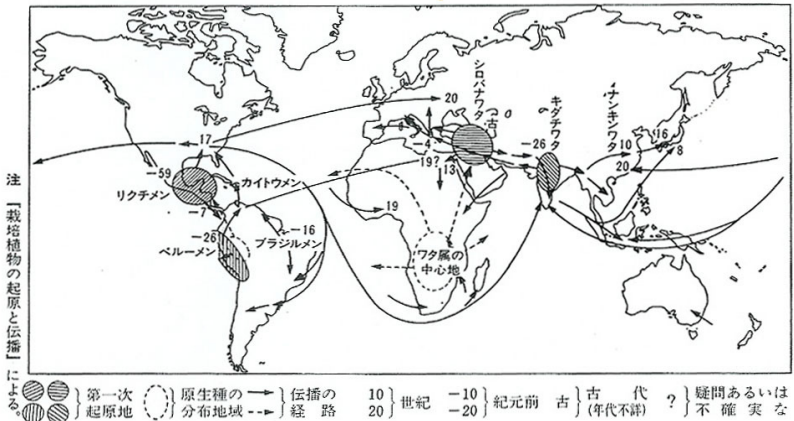
3) C. Wayne Smith & Joe Tom Cothren, *Cotton : origin, history, technology, and production*, New York : Wiley, 1999, p. 19.

4) *Ibid.*, p. 24.

5) *Ibid.*, p. 22.

6) *Ibid.*, pp. 20, 22-23, 25.

로를 한 데 보여주기 위해 제시한 아래 <그림 1>은 그와 같은 전파 순서나 시대를 표시하고 있어서 앞의 그림들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 면의 기원과 전파의 경로

<그림 1>은 스미스와 코스켄이 제시한 그림들과 전파 경로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치하나 주요한 네 종의 목화의 기원 시기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그 시기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에 따라 추정 시기가 다른 데 기인한다. <그림 1>의 장점은 네 종의 전파 경로를 그 시대와 함께 표시하고 있어서 아시아에서의 목화의 전파와 분포를 훨씬 파악하기 용이하다는 데 있다. 이 그림에서 눈에 띄는 사실은 첫째, 인도가 인도면에 있어서나 아시아면에 있어서 재배 중심지였고 이곳으로부터 아시아의 다른 권역으로 목화가 전파되었으며 아시아의 전 권역에서 목화가 재배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목화가 인도로부터 동북·동남아시아로 전파되는 경로로 육로뿐만 아니라 해

7) 武部善人, 『綿と木綿の歴史』, 東京: 御茶の水書房, 1989, 67쪽.

로가 활발하게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인도면과 아시아면만이 아니라 육지면이 해로를 통해 아시아에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이 그림에서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에 목화가 전파되는 경로와 시기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조선이 일본에 목화를 전파하고 그를 통해 일본의 생활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⁸⁾을 감안할 때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목화는 인도로부터 중국을 거쳐 육지로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에는 10세기 이후 인도로부터 목화 종자가 유입되어 12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나라 초기에는 여러 지방에 목화를 수납하는 기관이 설치될 정도로 목화 재배가 보급되었다.⁹⁾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인 14세기에서 원나라로부터 목화가 전파되었고, 조선 왕조의 성립과 더불어 목화 재배가 본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⁰⁾ 일본에 목화가 전파된 것은 <그림 1>에서처럼 16세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반적인 목화 재배가 시작된 것은 17세기부터이다.¹¹⁾

2) 국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목화 재배가 시작된 것은 고려시대인 1363년(공민왕 12년)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문익점이 다음 해 목화씨를 가지고 들어와 그의 고향인 경남 산청군(山淸郡) 단성면(丹城面)에서 장인인 정천익(鄭天翼)과 함께 재배에 성공한 이후로 알려져 있다. 문익점의 집안에서 내려오는 「가전(家傳)」 [그의 문집인 『삼우당실기(三憂

8) 이 사실에 대해서는 박화진, 「조선 목면의 일본 전래와 서민생활 변화」, 김해영 외, 『문익점과 목면업의 역사적 조명』, 아세아문화사, 2003, 168~215쪽 참조.

9) 같은 책, 176~177쪽.

10) 같은 책, 169쪽. 스미스와 코스렌은 세계 목화 산업 발전에 있어 주목할 만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로 1200~1300년 사이에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목화 재배가 시작된 것을 들고 있는데(C. Wayne Smith & Joe Tom Cothren, Cotton, p. 67.), 이는 시대가 잘못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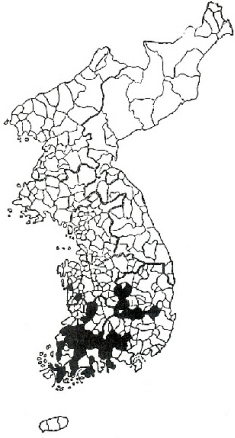
11) 같은 책, 214쪽.

堂實記』(1819)에 수록됨은 그가 귀국한 시점이 공식 기록과는 달리 1367년으로 중국에서 그가 유배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강남에서 몰래 목화씨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그가 수도인 베이징 근처에서 목화를 얻어 1364년 귀국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²⁾ 그리고 문익점의 목화 도입 훨씬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면직물을 이용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 증거가 제시되기도 하였으나¹³⁾ 어쨌든 본격적인 목화 재배가 이루어져 의생활 혁명이 일어난 것은 그가 목화를 가져와 재배에 성공한 고려 말 이후로 추정된다. 이때부터 목화가 기존의 대표적 직물이었던 모시와 삼베 등을 대신하게 됨으로써 의생활 등 생활문화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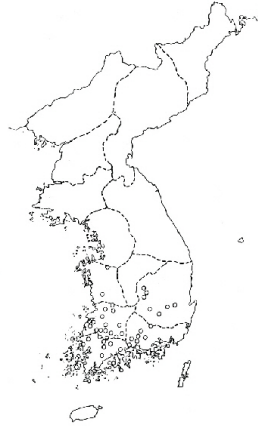
조선시대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래면(在來綿) 재배는 기후 때문에 주로 북위 37도 이남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조선 전기에는 전라도 전 지역과 경상도 중남부 내륙 지역이 주 산지였다. 아래의 <그림 2>¹⁴⁾는 그와 같은 분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 남부 연안 지방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은 이곳이 목화 재배에 필요한 일조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1454년(단종 2년)에 펴낸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를 토대로 작성된 <그림 3>¹⁵⁾에서도 전라도를 중심으로 유사한 분포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헌에 따르면 당시 경상도 고을 66곳 가운데 13곳, 전라도 고을

-
- 12) 김성준, 「문익점과 목면전래의 역사적 배경」, 『동방학지』, 제77-78-79합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3, 223~252쪽 참조.
 - 13) 민길자는 여러 고문헌에 등장하는 ‘백첩포’(白疊布)가 면직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면직물 제조 연대는 적어도 고구려 시대로 소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길자, 「면직물 제작연대에 대한 고찰」, 국립민속박물관, 『문익점과 무명문화』, 서울 : 국립민속박물관, 1991, 101~112쪽; 『(민길자 교수) 한국 전통직물사 연구』, 서울 : 한림원, 2000, 25~40쪽 참조. 2010년 7월 15일 국립부여박물관은 1999년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된 백제시대 직물 1점을 분석한 결과 이것이 문익점의 목화 전파 시점인 14세기보다 무려 800년이나 앞서는 국내 최고의 면직물이라고 발표하였다.
 - 14) 이호철, 『조선전기농업경제사』, 서울 : 한길사, 1986, 539쪽.
 - 15) 농업진흥청 작물시험장, 『목화시험연구 80년』, 수원 :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1988, 20쪽.

56곳 가운데 27곳에서 목화 재배가 성행했다고 한다.



<그림 2> 조선 전기의 목면 재배지역



<그림 3> 이조 초기에 있어서 직유작물의 분포 - 목면(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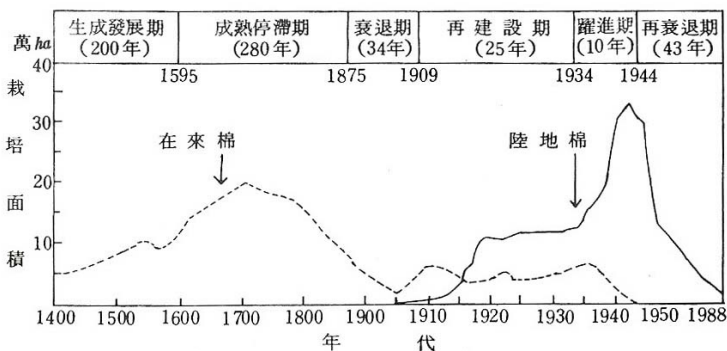
이와 같은 전라도 중심의 분포는 조선 후기에도 크게 변함이 없었다. 1830년대에 전라관찰사를 지낸 서유구(徐有榘)는 『완영일록(完營日錄)』에서 남원, 광주, 옥과(현재의 곡성)가 전라도에서도 특히 목화 재배가 가장 성행하여 고을에 목화밭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라 하였고, 일본인들이 작성한 『한국에서의 면작사항(棉作事項)』에 의하면 1895년 당시 광주의 농가 거의 대부분이 목화를 재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광주, 순천, 나주, 영암 등 남도 전역에서 무명배 생산이 성행했다고 한다.¹⁶⁾

20세기에 일제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의 목화 재배와 면직물 생산에는 큰 변화가 생긴다. 일본인들이 신대륙의 품종인 ‘육

16)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남도의 길·목화의 길』, 광주 :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09, 25쪽에서 재인용.

지면'을 들여와 강제적인 방법으로 재배하도록 하면서 재배 품종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재배 목적이 가내 소비에서 대규모 산업 생산으로 전환되면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04년 일본 영사와카마스(若松兎太郎)가 목포 고하도(高下島)에서 육지면의 시험 재배에 성공한 후 재래면의 주 산지였던 광주·전남 지역은 전국 목화 재배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목화 재배와 관련 산업의 중심지로 변모하였고, 일제강점기에 목포항은 목화의 최대 반출항이 되었다. 육지면 재배의 활성화와 경작지의 확대가 일제의 식민지 수탈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1930년대 중반에는 육지면의 국내 최대 산지에서 직접 면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광주에 종연방적(鍾淵紡績)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공장이 세워진다. 종연방적의 설립을 계기로 광주는 섬유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하여, 해방 이전 광주 공업 부문 종사자의 90% 이상이 면직업에 종사할 정도가 되었다. 종연방적이 소재한 임동을 중심으로 광주의 도시 경관이 크게 변화하였고, 수많은 관련 중소 업체들이 연달아 시내 전역에 설립되었으며, 광주를 상징하는 충장로에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포목점들이 들어서면서 이 거리를 상권과 금융권의 중심으로 변모시켰다. 또한 종연방적과 화순탄광을 연결하는 철도가 부설되고, 종연방적에 인접한 곳에 광주역이 세워져 송정리역까지 연결되는 철길이 놓이게 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면직업은 광주·전남의 경제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는데, 종연방적을 승계한 일신방직과 전남방직 주변에 노동자를 위한 학교(전남중·고등학교), 교회(서림교회), 영화관(아세아극장·문화극장) 등이 세워진 것을 통해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방직공장에 근무하던 수많은 어린 직공들은 광주 경제의 디딤돌이 되었다. 그러나 한때 '군산의 쌀, 목포의 목화'라 할 정도로 호남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목화 재배와 면직업이 쇠퇴하면서 광주 역시 동일한 변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¹⁷⁾



<그림 4> 재래면과 육지면의 재배면적 변화

위의 <그림 4>¹⁸⁾는 140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즉 문익점의 목화 도입 직후부터 현대까지의 목화 재배 면적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 목화 재배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관찰할 수 있다. 1904년을 기점으로 재배 품종은 재래면과 육지면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그 재배는 각각 1700년 무렵과 1940년대 중반에 정점에 달하였다가 점점 줄어드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재래면 재배가 육지면 재배의 절정기인 1940년대 중반에 완전히 중단되고 육지면 재배도 현재로 가까워질수록 사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변함이 없는 것은 목화 재배와 면직물 생산의 분포로, 광주·전남이 품종에 관계없이 항상 그 활동이 가장 활발한 중심지였다 는 것이다.

17) 20세기에 목화 재배와 면직업이 광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같은 책, 89~146쪽 참조.
 18) 농업진흥청 작물시험장, 『목화시험연구 80년』, 15쪽.

3. 목화문화자원의 수집과 기록

1) 목화문화자원세트

지금까지 살펴본 아시아와 국내의 목화 전파와 분포를 통해 어떤 지역에 특히 목화문화자원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 지역들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 파악을 토대로 구체적인 수집·기록 지역을 결정하고 문헌 및 자료 조사연구, 현지조사, 수집·기록 및 문화지도 작성, 평가 및 보완 수집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자원의 수집과 기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목화문화자원의 구성을 파악하여야만 수집·기록 지역에서 실제로 수집할 객체가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서 개발한 ‘문화자원세트’ 개념을 적용하여 목화문화자원의 구성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수집 객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문화자원세트는 “해당 문화 대상을 재현 가능케 하고 콘텐츠화 할 수 있는 자원 객체의 집합”으로 “수집된 문화자원의 맥락을 보존하고, 가치 있는 문화자원을 범주화하고 집합화시켜 관리와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트는 ‘본(本)자원’, ‘과정자원’, ‘서사자원’, ‘연관자원’, ‘해석적 자원’의 다섯 가지 자원으로 구성되는데, 본자원은 “사람, 공간, 도구, 대상, 행위, 기원(유래)을 포괄할 수 있는 해당 문화자원을 직접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핵심자원”, 과정자원은 “본자원의 표현행위, 표현 틀의 생산·수집 과정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는 자원”, 연관자원은 “해당 자원과 연관된 기존에 존재하는 콘텐츠 자원들”, 서사자원은 “역사적 전거에 의해 다양하게 존재하는 해당자원의 이야기를 제공하는 자원”, 해석적 자원은 “해당 자원에 담겨진

문화적 코드, 사회적 맥락 등을 설명해주는 자원”을 가리킨다.¹⁹⁾

목화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자원세트 개념을 적용하여 자원을 세부 자원별로 분류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 1>은 하나의 목화문화자원세트를 이루는 나주 ‘셋골나이’²⁰⁾의 구성을 예시한 것이다.

<표 1> ‘나주 셋골나이 목화문화자원세트’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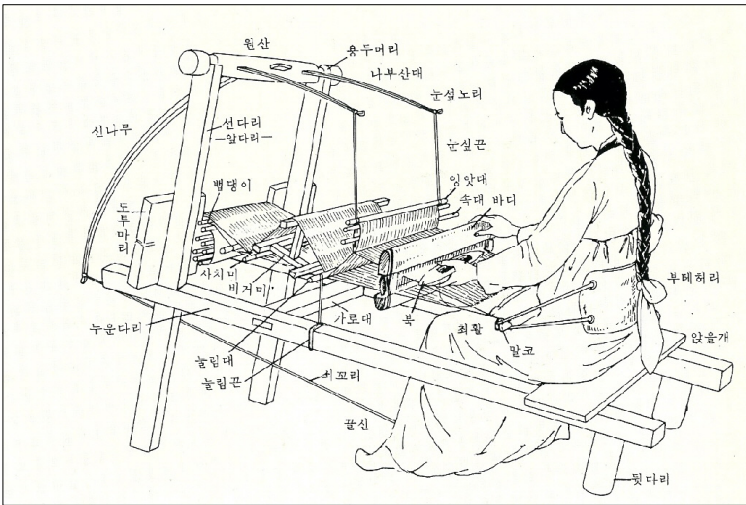
구분	구성 요소	수집 및 기록 대상 내용	예상 객체
문화 자원 세트	본자원	행위	- 나주셋골나이의 전통적 방식의 ① 목화 재배·수확, ② 방직, ③ 직조 행위 관련 자원 - 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 행위 재현에 필요한 관련 기록
		사람	- 행위 재현 시행 주체인 장인(중요무형문화재 제28호 노진남 등)·전문가·중사자 관련 자원 - 나주셋골나이 계승 정보 - 구술기록, 영상기록, 녹취록
		공간	- 나주시 다시면 셋골 등 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지역, 마을, 가옥 등) 관련 자원 - 관련 보고서 및 서적 - 사진, 동영상 등
		도구	- 나주셋골나이 실행에 사용되는 도구 관련 자원 - (방직) 씨아, 솜활, 물레, 바디 등 - (직조) 베틀, 북 등 - 직접 수집보다 사진, 동영상 기록물 생산
		기원(유래)	- 나주셋골나이의 시간적·공간적 유래(지명 등) 설명 자원 - 고문헌 등 관련 해설물, 사진
		대상	- 나주셋골나이 실행의 결과물 관련 자원 - 목화, 솜, 무명실, 무명베, 무명옷 등 - 직접 수집보다 사진, 동영상 기록물 생산
	과정 자원	실행 전 단계	- 나주셋골나이 실행의 주제, 목표, 형태 등을 명시하거나 그 과정·방법을 설명·교육하는 - 구술기록, 사진, 동영상 - 실용 서적

- 19)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아시아문화정보원 상세 업무프로세스 및 매뉴얼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 : 1. 아시아문화정보원 업무매뉴얼』,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10, 192쪽.
- 20) ‘셋골나이’는 나주시 다시면 셋골 일대에서 무명 짜는 사람 또는 무명 짜는 일을 아울러 부르는 말인데, 동당리 청림마을에 사는 노진남(중요무형문화재 제28호)이 기능보유자이다.

구분	구성 요소	수집 및 기록 대상 내용	예상 객체	
	실행 후 단계	자원		
		- 수행자의 후기, 향유자의 반응 및 다양한 주체의 평가와 관련된 자원	- 수행자/향유자 후기, 인터뷰, 웹페이지 등 - 평가 관련 보고서 등	
	서사 자원	스토리 텔링 자원	- 나주셋글나이 관련 구전 설화, 민요(특히 노동요) 등 관련된 이야기 자원	- 구전 설화 기록물 - 민요 녹취록
		관련 고문헌	- 나주셋글나이 관련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고문헌 자원	- 관련 고문헌 자료
	연관 자원	콘텐츠	- 나주셋글나이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미디어 콘텐츠, 문화상품 등) 관련 자원	-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 공예품 등
		행사	- 축제 등 나주셋글나이 관련 행사 자원	- 행사 프로그램 - 행사 무대 기록 영상물
	해석적 자원	학술 자료	- 단행본을 제외한, 나주셋글나이에 대한 조사연구 관련 학술 자원	- 논문, 세미나 등 학술행사 자료 - 학술 목적으로 생산된 기존 사진, 동영상 자료
		단행본	- 나주셋글나이에 대한 조사연구 관련 출판 학술 자원	- 관련 서적
		홍보물	- 나주셋글나이 관련 홍보 자원	- 보도자료, 리플렛, 포스터 등

위 표의 ‘수집 및 기록 대상 내용’과 ‘예상 객체’를 살펴보면 ‘나주셋글나이 목화문화자원세트’를 이루는 다섯 개의 자원별로 수집·기록할 내용과 객체가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이 세트의 타당성과 수집·기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구성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목화와 직접 관련된 본 자원 가운데 행위 요소와 도구 요소이다. 목화와 관련된 행위는 순서대로 ① 재배·수확, ② 방적, ③ 직조, ④ 염색, ⑤ 유통의 다섯 단계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나주시 다시면 셋골에서는 지금도 목화를 재배·수확하여 무명실을 짓고 무명베를 짜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섯 단계 가운데 ①, ②, ③의 행위가 관련된다. 이 행위들은 더 세분화하여 공정 표준화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국내와 아시아의 여러 다른 지역에서 수집한 자원들의 비교 연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자원 도구 요소는 이 행위들에 사용되는 도구

자료로 특히 방적과 직조 도구는 이 문화자원세트와 관련하여 수집·기록이 예상되는 중요한 객체들이다. 이러한 도구들은 자료의 수집에 나서기 전에 미리 목록화하여 수집 시에 참고·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아래의 <그림 5>²¹⁾는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무명 베짜기에 사용되는 도구들을 망라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목화문화자원세트 구성표를 조사할 지역별로 미리 작성하여 수집에 활용하고 이 과정의 완료 후 실제 수집물을 토대로 내용을 수정·보완하면 수집과 기록이 보다 엄밀해질 것이다.



<그림 5> 베짜기

21) 국립민속박물관, 『문익점과 무명문화』, 37쪽. 이 문헌은 베짜기 외에도 씨 빼기, 솜반짓기, 실뽑기, 날고르기, 베매기 등 베짜기 전 준비 단계에 필요한 전통 도구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같은 책, 36~37쪽).

2) 수집·기록 지역

앞서 2장(‘목화의 전파와 분포’)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아시아와 국내에서 목화문화자원이 분포한 지역을 추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조사·수집 대상이 될 지역을 결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국내 목화문화자원 수집·기록 지역이 될 수 있는 장소들에 대해 살펴본 후 그 기원과 전파 경로였던 아시아의 각 지역들로 거슬러 올라가 이곳들 가운데 의미 있는 수집 장소가 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먼저 문익점의 목화 전파와 우리나라 의생활 문화의 변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경남 산청 지역을 들 수 있다. 이곳에서도 특히 문익점목화시배지(사적 108호)가 있는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沙月里)가 목화문화자원이 집중된 곳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선시대까지 재래면 생산이 가장 활발한 곳이었으며, 육지 면이 들어온 후에는 목화 재배와 면직물 생산의 중심지였던 광주·전남에서 수집·기록 지역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서 특히 지금도 많은 목화문화자원이 남아있는 광주, 곡성, 나주, 목포의 네 지역이 의미 있는 수집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다. 1930년대부터 대규모 방직공장이 설립되면서 섬유도시로 발전한 광주에는 기계를 이용한 현대적 방직·직조 관련 자원뿐만 아니라 많은 포목점들이 들어서 면제품 판매가 활발했던 충청로 상권을 중심으로 유통 관련 자원이 분포되어 있다. 한때 전남 최대의 목화산지인 지금도 목화를 생산하고 있고 해마다 목화축제(2010년 현재 9회 진행)를 개최하고 있는 곡성 곁면에는 목화의 재배·수확 관련 자원이 분포되어 있다. 현재도 앞서 살펴본 ‘셋골나이’와 ‘쪽쟁이’²²⁾를 보유하고 있는 나주에는 목화의 재배·수확 관

22) ‘쪽쟁이’는 쪽빛 염색장을 이르는 말인데, 나주시 다시면의 염색장 정관채(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가 기능보유자이다.

런 자원뿐 아니라 전통 가내 수공 방식의 방적·직조 관련 자원과 전통 염색 관련 자원이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육지면이 재배되었고 일제강점기에 목화의 최대 반출항으로서 생산·유통 관련 기업이 밀집하였던 목포에는 초기의 육지면 재배·수확 관련 자원과 식민지 시대의 유통 관련 자원이 분포되어 있다. 아래의 <표 2>는 광주·전남의 수집·기록 지역과 그곳에서 수집·기록할 대상 내용을 행위 요소별로 재구성한 것이다.

<표 2> 광주·전남의 행위 요소별 수집·기록 지역 및 수집·기록 대상 내용

행위 요소	수집·기록 지역	수집 및 기록 대상 내용
재배·수확	곡성	전통 방식의 목화 재배·수확, 목화축제
	나주	전통 방식의 목화 재배·수확
	목포	최초의 육지면 재배 과정
방적	광주	현대적 방적 과정과 방식, 광주 방적산업의 역사
	나주	전통 방식의 무명실 제조 과정과 방식
직조	광주	현대적 직조 과정과 방식, 광주 직조산업의 역사
	나주	전통 방식의 무명베 제조 과정과 방식(갯골나이, 곡성의 ‘돌실나이’ ²³⁾ 와 비교 가능)
염색	나주	전통 염색 과정과 방식
유통	광주	충장로의 면제품 유통(특히 광주 최대의 포목점이었던 남창상회, 공익상회를 중심으로 함)
	목포	일제강점기의 목화면제품 유통과 반출

아시아에서는 두 가지 점에 유의하여 수집·기록 지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목화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길을 중심으로 수집·기록 지역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목화문화자원을 수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역 구분 방식에 따라 동북·동남·남·중앙·서남아시아의 다섯 권역으로

23) ‘돌실나이’의 ‘돌실’은 곡성군 석곡면을 가리키며, ‘나이’는 삼베를 짜는 일 또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나누어 한 권역에서 목화 재배와 면직물의 생산, 목화와 면문화의 전파에 있어 특히 의미 있는 국가 한두 곳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점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재래면의 기원인 남아시아의 인도, 재래면 전파의 중간 경로였던 동북아시아의 중국, 우리나라로부터 목화를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육지면을 들여온 같은 권역의 일본을 수집 대상 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이 나라들은 또한 각각 아시아 목화 재배와 면직물의 생산의 기원이자 현재 세계 제2위의 목화 생산국, 현재 세계 최대의 목화 생산국, 동북아시아 목화 전파의 종착지이자 20세기 전반 세계 주요 면직물 수출국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도에서는 대표적 목화 산지인 구자라트(Gujarat) 주와 지금도 전통 방식으로 면직물을 생산하고 있는 라자스탄(Rajasthan)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주가 구체적인 수집·기록 지역이 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문익점이 목화씨를 얻은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이자 면직물 산업 중심지이기도 한 베이징과 그 주변 도시들[특히 허베이성(河北省) 스자좡시(石家庄市)], 중국 최대 목화 산지인 산둥성(山东省) 샤진현(夏津县), 오랫동안 목화 재배, 방적·방직 및 유통에서 중심지가 되어온 상하이와 그 주변 지역, 역시 주요 목화 산지인 신장웨이우얼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 우루무치시(乌鲁木齐市) 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특히 목화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였던 오사카와 그 주변 지역, 주요 목화 재배·가공 지역이자 도요타의 자동차기가 제작된 곳이기도 한 아이치현(愛知県)을 꼽을 수 있다.

두 번째 점과 관련해서는 서남아시아의 터키,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를 들 수 있다. 터키는 아시아 코튼로드의 서쪽 끝에 위치하여 인도의 목화와 면직물이 유럽으로 전파되는 경로가 되었으며 현재 세계 제8위의 목화 생산국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나라에서는 최대 목화 산지인 이즈미르(Izmir)·아다나(Adana) 주가 구체적인 목화문화자원 수집·기록 지역이 될 것이다. 현재 세계

제6위의 목화 생산국인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에서 ‘백금지국’(白金之國)²⁴⁾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목화 생산국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최대 목화 산지 및 면직물 공업 중심인 타슈켄트(Tashkent) 지역을 중심으로 목화문화자원을 수집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인도와 같은 면문화권에 속하는 동남아시아의 끝에 위치한 지역이자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로를 통해 신대륙의 육지면이 전파되기도 한 지역이어서 의미 있는 수집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다. 이 나라의 보루네오(Borneo)·자바(Java)·수마트라(Sumatra)·섬바(Sumba)·발리(Bali) 섬에서는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은 면직물과 고유한 염색 기법을 중심으로 목화문화자원을 수집할 수 있다.²⁵⁾

국가·지방·도시와 같은 수집 대상 지역들과 그곳들을 대표하는 관련 문화자원들 각각은 나름의 문화자원세트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별로 목화문화자원세트 구성표를 작성하여 서로 비교한다면 대상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전파 경로와 상호 영향 관계, 그리고 각 지역 고유의 면문화와 상징적인 목화문화자원의 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다.

3) 네트워킹, 학제간 연구, 디지털 아카이브, 비교 전시

목화문화자원세트의 구성을 통해 수집 객체를 조사하고 수집·기록 지역을 결정한 뒤에는 구체적인 수집·기록 방법에 대해 논의하여야 할 것이나 본고는 이와 같은 논의가 수집·기록 방법 일반론이 될 수 있기

24) ‘백금지국’은 ‘흰 황금의 나라’라는 뜻인데, 여기서 ‘흰 황금’은 목화를 뜻한다. 자크 앙크틸(Jacques Anquetil)의 저서(*Les routes du coton : L'épopée de l'or blanc*, Paris : J.-C. Lattès, 1999)의 부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목화는 ‘흰 황금’으로 불려왔다.

25) 아시아 각 권역의 수집 대상 국가와 지방·도시의 선택에 있어서는 자크 앙크틸의 저서와 에릭 오르세나(Erik Orsenna)의 저서(*Voyage aux pays du coton : Petit précis de mondialisation*, Paris : Le Livre de Poche, 2007)를 주로 참조하였다.

때문에 생략하고 대신 수집과 기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수집·기록물을 사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어 강조해야할 몇 가지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만 고찰하기로 한다.

첫째, 목화문화자원 수집·기록에 있어서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목화문화자원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직접 수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이미 수집된 자료를 기증받거나, 구입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자원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박물관·전시관, 연구기관, 기업 등을 들 수 있다. 국내 목화문화자원 관련 기관을 예시하자면, 박물관·전시관의 경우 2009년 ‘남도의 길·목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광주·전남의 목화길 관련 전시를 개최한 바 있어 국내 및 광주·전남 목화 관련 자원 전반을 얻을 수 있는 광주시립민속박물관²⁶⁾, 광주·전남의 전통 염색 방식 관련 자원을 구할 수 있는 나주 천연염색문화관²⁷⁾, 문익점의 목화 시배 관련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산청 목화시배지전시관, 연구기관의 경우 국내 목화 재배·수확, 유통 관련 자원 전반을 보존하고 있는 목포의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 기업의 경우 광주·전남 방직산업의 역사 관련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방(주)²⁸⁾과 일신방직(주)²⁹⁾을 들 수 있다. 목화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는 다섯 행위 요소와 관련된 장인(무형문화재 등)·전문가·종사자가 있는데, 앞서 언급한 무형문화재 노진남과 정관채를 예로 들 수 있다.

수집·기록 사업을 아시아로 확대할 때에도 대상 국가의 목화 재배,

26) Cf. <http://gjfm.gicity.net/>.

27) Cf. <http://www.naturaldyeing.or.kr/>.

28) Cf. <http://www.chonbang.co.kr/>.

29) Cf. <http://www.ilshin.co.kr/>.

면방직의 역사와 현황에 관한 유물·자료를 소장하고 있어 자원 수집에 큰 도움이 되는 직물·목화박물관과 관련 자료를 생산·소장하고 있는 연구기관·기업 등과 밀접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전자의 예로는 인도 고유의 평직 직조 순면직물인 캘리코(calico) 관련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구자라트 주 아흐메다바드(Ahmedabad) 소재 캘리코직물박물관(Calico Museum of Textiles)³⁰⁾, 인도네시아 고유 직물 관련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자카르타(Jakarta) 소재 직물박물관(Textile Museum, Museum Tekstil), 중국 목화 생산 관련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우루무치시 소재 중국목화박물관(中国棉花博物馆)과 장쑤성(江苏省) 쑤첸시(宿迁市)에 건립 예정인 같은 이름의 박물관, 중국 고유 직물 관련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장쑤성 난통시(南通市) 소재 난통방직박물관(南通纺织博物馆)을 들 수 있다. 후자의 연구기관의 예로는 인도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주 나그푸르(Nagpur) 소재 목화중앙연구소(CICR : Central Institute for Cotton Research), 중국 허난성(河南省) 안양시(安阳市)에 위치해있으며 중국목화잡지사(中国棉花杂志社)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농업과학원목화연구소(中國農業科學院棉花研究所), 후자의 기업의 예로는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名古屋市)에 자동 직기 제작 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도요타 산업기술 기념관(トヨタ産業技術記念館)을 들 수 있다.

둘째, 목화문화자원의 원활한 수집·기록을 위해서는 학제간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목화문화자원을 수집·기록할 때 그 맥락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워크숍·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주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때 ‘고대의 목화’, ‘문익점과 목화의 전래’, ‘목화를 통한 의생활’, ‘목화 관련 고농서’, ‘목화 관련 민속자료·농요’, ‘면방직과 면산업’, ‘종연방직과 농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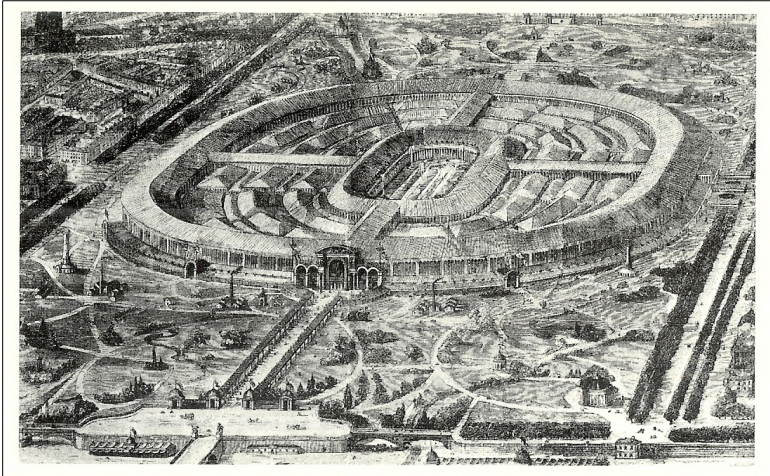
30) Cf. <http://www.calicomuseum.com/>.

생활사’, ‘면산업과 여성 노동사’, ‘한국·세계의 목화 그림 및 예술’ 등이 연구발표 주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목화와 관련된 실제 유물을 수집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보다는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주 수집 객체로 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를 누구나 향유·활용할 수 있도록 웹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웹을 통해 제공된 디지털 아카이브의 자료들은 실제로 아카이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자원 수집·기록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포함하여 아시아 어떤 지역의 주민이든지 원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앞서 <표 1>에서 실제 유물을 직접 수집하는 것보다 디지털 형태로 된 텍스트, 사진 등의 이미지, 다큐멘터리 등의 동영상, 음성·음악·음향의 사운드의 네 자료를 수집 또는 생산할 것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넷째, 이와 같이 수집·기록한 자원들을 웹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하던 전시회 등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던 사용자가 서로 다른 여러 지역에서 모은 것들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 상호간의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목화문화자원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전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가상 전시(virtual exposition)인 웹 전시(web exposition)³¹⁾에서 보다 용이한 일이지만 오프라인 전시에서도 이에 적합한 전시 구성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1) 웹 전시에 대해서는 노시훈, 「웹 생태박물관을 활용한 문화유산의 기록과 보존 : 무등산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제27집, 한국기록학회, 2011, 224~227쪽 참조.



<그림 6> 1867년 파리세계박람회 주 전시관 조감도

위의 <그림 6>³²⁾은 1867년 파리세계박람회(Exposition universelle de 1867) 주 전시관의 조감도인데, “이 박람회에서는 전시품을 타원형으로 이루어진 주 전시관의 동심원상에 부문별로 배열하고, 방사상에 국가별로 배열하여 방사상의 통로를 따라가면 한 나라의 산물을 모두 볼 수 있게 하였다.”³³⁾ 목화문화자원의 오프라인 전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전시장 내의 동심원상에는 목화의 재배·수확, 방적, 직조, 염색, 유통의 다섯 단계에 따라 수집물을 전시하고, 방사상에는 이것들을 2절에서 언급한 국가·지방·도시 등에 따라 전시한다면 동심원상의 통로에서는 목화의 과정에서 면직물의 유통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한 단계를 선택하여 지역별로 수집물을 비교해볼

32) John E. Findling & Kimberly D. Pelle (ed.), *Encyclopedia of World's Fairs and Expositions*, McFarland & Company, 2008, p. 40.

33) 노시훈, 「세계박람회와 문화교류」, 『해양문화연구』, 제5집,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2010, 59~60쪽.

수 있고, 방사상의 통로에서는 한 수집·기록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전시 방법은 다양한 목화문화자원 세트들이 교차되도록 함으로써 전시의 입체감을 더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아시아와 국내에서의 목화의 전파와 분포, 목화문화자원의 수집과 기록 방법에 대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아시아에서는 기원전부터 남아시아의 인도에서 재배·생산한 목화와 면직물이 아시아 전 권역으로 육로와 해로를 통해 전파됨으로써 목화길과 면문화권이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363년 문익점이 중국에서 들여온 재래면을 재배하다가 1904년부터 일본을 통해 들어온 육지면을 재배하였다. 특히 광주·전남은 조선시대까지 재래면 생산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었고, 육지면 도입 후에는 목화 재배와 면직물 생산의 중심지였다. 이처럼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목화문화자원을 수집·기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구성 요소들을 분류한 문화자원세트를 만들고 그에 따라 수집할 객체를 조사한다. 수집 대상 지역은 전파 경로와 목화에 관해 지역이 갖는 의미를 토대로 선정한다. 아시아 전체에서 관련 자원을 직접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역 문화자원의 수집·기록에 필요한 학제간 연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실제 유물 수집의 한계를 고려하여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위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를 누구나 원격으로 향유·활용할 수 있도록 웹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자

원들의 유사와 차이, 상호간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에서 비교 전시하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집·기록된 목화문화자원은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문화자원의 단순한 수집·기록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수집된 자원을 웹을 통해 공개하고 그것을 소재로 한 온오프라인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인류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목화와 그것이 형성한 목화길·면문화권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전술한 대로 목화문화자원은 아시아적 보편성을 가지면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자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수집된 자원은 아시아 속에서의 우리 문화와 우리 문화 안의 아시아를 주제로 한 학습·교육 프로그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수집된 자원을 국내의 작가에게 창작 소재로 제공하여 문화·교육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수집·기록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 서사자원은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재료가 된다. 또한 국내의 방송국과 협력하여 아시아 목화길에 관한 교양 다큐멘터리를 제작·보급함으로써 문화자원 활용의 모델 제시, 관련 국가 간의 문화교류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고승제, 『근세한국산업사연구』, 서울 : 대동문화사, 1959.
-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남도의 길·목화의 길』, 광주 :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09.
- 국립민속박물관, 『문익점과 무명문화』, 서울 : 국립민속박물관, 1991.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백제의 직물』, 부여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 김성준, 「문익점과 목면전래의 역사적 배경」, 『동방학지』, 제77·78·79합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3, 223~252쪽.
- 김해영 외, 『문익점과 목면업의 역사적 조명』, 아세아문화사, 2003.
- 노시훈, 「웹 생태박물관을 활용한 문화유산의 기록과 보존 : 무등산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제27집, 한국기록학회, 2011, 209~238쪽.
- _____, 「세계박람회와 문화교류」, 『해양문화연구』, 제5집,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2010, 53~77쪽.
- 농업진흥청 작물시험장, 『목화시험연구 80년』, 수원 :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1988.
- 문경현, 「문익점의 사행과 목면 전래」, 『경북사학』, 제26집, 경북사학회, 2003, 119~169쪽.
- 민길자, 『세계의 직물』, 서울 : 한림원, 1998.
- _____, 『(민길자 교수) 한국 전통직물사 연구』, 서울 : 한림원, 2000.
- 박선희, 「생태계의 차이로 본 동아시아 면직물 비교」, 『비교민속학』, 제41집, 비교민속학회, 2010, 11~40쪽.
- 박성식, 「여말선초의 목면업에 대하여」, 『대구사학』, 제17집, 대

- 구사학회, 1979, 59~88쪽.
- 이호철, 『조선전기농업경제사』, 서울 : 한길사, 1986.
- 전경일, 『더 씨드 : 생존을 위한 성장의 씨앗 : 문익점의 목화씨는 어떻게 토요타자동차가 되었는가』, 서울 : 한국물가정보 : 비즈니스맵, 2009.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아시아문화정보원 상세 업무프로세스 및 메뉴얼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 : 1. 아시아문화정보원 업무매뉴얼』,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10.
- 武部善人, 『綿と木綿の歴史』, 東京 : 御茶の水書房, 1989.
- Anquetil, Jacques, *Les routes du coton : L'épopée de l'or blanc*, Paris : J.-C. Lattès, 1999.
- Findling, John E. & Pelle, Kimberly D. (ed.), *Encyclopedia of World's Fairs and Expositions*, McFarland & Company, 2008.
- Orsenna, Erik, *Voyage aux pays du coton : Petit précis de mondialisation*, Paris : Le Livre de Poche, 2007.
- Smith, C. Wayne & Cothren, Joe Tom, *Cotton : origin, history, technology, and production*, New York : Wiley, 1999.
- Wilson, Kax, *A history of textiles*, Boulder, Colo. : Westview Press, 1979.

ABSTRACT

A Collecting and Record of Wide Area Cultural Resources : the Case of Asian Cotton Cultural Resources

Noh, Shi-Hun

In Asia, when cotton and cotton fabrics cultivated and produced in India of Southern Asia had spread to the whole Asia area by land and by sea, the Cotton Road and cotton fabric cultural area could be formed. In Korea, the traditional cotton (*Gossypium arboreum*) brought by Moon Ik-Jeom in 1363 was cultivated and then the Upland cotton (*Gossypium hirsutum*) brought via Japan could be produced from 1904. Especially, Gwangju/Jeonnam was the most active place in producing traditional cotton, and eventually became the center of cotton cultivation and fabric production after bringing in Upland cotton. In order to collect and record the cotton cultural resources in the broad area, the Cultural Resources Set, classified its component parts should be made first and then the collecting objects should be investigated. The collecting areas are selected based on the spreading paths and the regional significance of cotton. Since its difficulty of collecting the relevant resources from all of the places in Asia, it should be planned to share the resources through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private, institution and organization. The relevant experts from the various fields should participate in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es which are necessary for collecting and recording of wide area cultural resources. Considering the collecting limitation of genuine

relics, the digital archives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n offered through a web site that everyone can use them freely by remote. It also needs to plan to display on and off-line for users to perceive the similarity, difference and interconnections of the resources with ease.

Key words : Cultural Resources, Cultural Resources Collecting and Record, Cotton, Cotton Road, Cultural Resources Set, Digital Archive